

『피네간의 경야』에 울려 퍼지는 탈식민 메아리 그리고 다시 쓰는 대안적 역사*

김 경 숙

I. 들어가며

조이스(James Joyce)의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는 가독성이 매우 낮은 난해한 작품으로 정평이 나있다. 따라서 출판 후부터 1980년대 까지 『피네간의 경야』에 대한 연구는 어휘 분석과 챕터 별 줄거리를 제공하는 참고서 수준의 연구서, 혹은 작품 전체를 꿈이나 인류의 보편 역사로 보는 환원주의적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어휘 분석에만 머무는 연구는 『피네간의 경야』의 큰 그림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피네간의 경야』로부터 투명한 서사를 추출하는 것은 조이스의 언어 실험의 의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않고 텍스트를 다시 직선론적 서사구조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28305).

따라서 필자는 『피네간의 경야』에서의 조이스의 언어실험이 갖는 의미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탈식민적 저항의 메아리’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피네간의 경야』에서의 조이스의 언어실험을 단순한 모더니즘 기법으로 보지 않고, 지배자의 언어에 대한 식민지 작가의 저항의 행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자면 조이스는 식민주의의 과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용을 강요당한 지배자의 언어인 영어에 언어실험과 문체실험을 가하여 무기로 삼음으로써 영국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전략을 취한 셈이다. 즉,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영국제국이 강요한 정통영어가 아닌 수많은 언어를 혼합하여 만든 조이스식의 합성조어는 언뜻 영어처럼 보이나 결코 정통영어가 될 수 없이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에 온통 메아리치며 영국제국이 내세우는 정통성과 권위에 흠집을 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 연구의 후속작업으로서 『피네간의 경야』에서의 저항의 메아리를 ‘대안적 역사쓰기’와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대안적 역사쓰기’는 소설의 내러티브를 통해 정통역사 서사를 대안의 버전으로 고쳐 쓰는 행위를 말하며, 탈식민주의의 저항 전략 중 하나인 ‘다시 쓰기’ 혹은 ‘되받아 쓰기’(writing back)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자 실천이다. ‘다시 쓰기’ 전략을 통하여 종주국의 식민 텍스트가 피지배 원주민 시각에서 다시 씌으로써 그 안에 녹아든 식민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듯, ‘대안적 역사쓰기’는 정통역사서술의 권위를 와해시킨다.

요컨대 본 논문은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실험을 탈식민 저항의 메아리로 보는 선행연구의 해석에서 한 발 자국 더 나아가 조이스가 아일랜드와 인류의 역사를 대안적 형태로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안적 역사쓰기’ 개념은 겉으로 보기에 정치·역사와 무관한 모더니스트로 오해받기 쉬운 조이스 특유의 저항적 글쓰기의 정치성을 새롭게 읽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탈식민 메아리로서의 『피네간의 경야』

앞서 밝혔듯, 본 논문은 필자의 선행 연구 “‘쉿! 조심! 에코랜드!’: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 탈식민적 에코로 쓰는 대안적 역사”에 대한 후속연구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을 밝히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일랜드적 의미를 지닌 이 소리를 보라/마땅하다. 정말? 여기 영어가/영국인이 보일지도/죄가 될지도 모르겠다. 아주 훌륭하게? [. . .] 췌! 조심! 에코랜드!

Behove this sound of Irish sense. Really? Here English might be seen. Royally? [. . .] Hush! Caution! Echoland! (*FW* 12.36-13.05)

텍스트의 맨 처음과 끝이 서로 맞닿아 다시 문장을 이루는 순환적 원형구조를 지닌 『피네간의 경야』의 경우 ‘시작’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지만, 본 논문의 선행 연구는 『피네간의 경야』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위의 인용문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위의 문장은 자신의 텍스트를 소개하는 조이스 특유의 작가적 자의식이 표출된 것임과 동시에, 『피네간의 경야』에 대한 작가적 의도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behave”란 단어는 “옳다,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일차적이지만, 문장 구조상 “behold”를 연상시키며 『피네간의 경야』에서 시도하고 있는 언어실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반면 자신의 텍스트에 영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함과 동시에 “royally”를 통하여 독립 후에도 여전히 영국의 왕에게 충성해야 하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조롱한다. 특히, 위의 “seen”을 “sin”으로 환치할 경우, “영어/영국인은 여기서 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에, 독립 후에도 종료되지 않는 아일랜드의 식민 상황 혹은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서 작가로

서 조이스가 갖는 죄의식을 상기시킨다.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은 더욱 흥미롭다. 마지막 단어인 “에코랜드(Echoland)”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옛 명칭 에이레(Eire)와 더불어 아일랜드(Ireland)에 대한 『피네간의 경야』 식의 신조어라 할 수 있다(echo+Eire+Ireland=Echoland). 아일랜드를 독립으로 이끌 희망의 불씨였던 파넬(Charles Stuart Parnell)을 몰락으로 몰고 간 것이 다름 아닌 스캔들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가십을 뜻하는 메아리로서 ‘Echoland’는 아일랜드에 대한 매우 시니컬한 별칭이라 하겠다. 물론 가십은 파넬을 몰락시킴으로써 독립의 문전에서 아일랜드를 다시 속박의 굴레 속으로 빠뜨렸지만, 영국제국주의가 내세우는 정통역사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힘도 내포하고 있기에, 양가적 의미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이스는 ‘gossipocracy’(FW 476.4)라는 신조어를 통해 모든 세대를 관통하며 가십이 유포되는 양상을 강조하며 “수수께끼에 가까운 『피네간의 경야』의 화자를 포함하여 모든 목소리의 불확정성을 드러낸다”(Lemos 354).

또한, “쉿! 조심! 에코랜드!”(Hush! Caution! Echoland!)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볼 경우, 이는 텍스트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피네간의 경야』의 중심인물 “HCE”의 수많은 이니셜 목록¹⁾ 중 하나가 된다. 동시에 이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새로운 민족 양심의 대장장이가 되고자 했던 스티븐(Stephen Dedalus)의 예술 전략 삼위일체인 “침묵, 교활, 그리고 망명”(silence, cunning, and exile)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본 논문의 선행 연구에서는 위의 예술 전략 삼위일체 중 마지막에 해

1)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 도처에 흩어져 있는 HCE의 이니셜 몇 개를 소개하자면, 만인을 의미하는 “Here Comes Everybody,” 아버지를 의미하는 “Haveth Childers Everywhere,” 영국 국교회를 의미하는 “High Church of England,” 화학식을 의미하는 “H2CE3”, 죄인을 의미하는 “human, erring and condonable,” 성인을 의미하는 “Ecce Hagios Chrisman,” 도시의 건축가를 의미하는 “Hod, Cement, and Edifices,” 더블린 자체를 상징하는 “Howth Castle and Environs,” 금융을 의미하는 “Honour commercio’s energy”와 “He’ll Cheat E’erawan” 등을 들 수 있겠다.

당하는 “에코랜드”(Echoland), 특히 “echo”라는 말에 주목하여 조이스의 언어실험을 일종의 “메아리”로 해석하였다. 조이스가 영국의 제국주의만큼이나 아일랜드의 맹목적 민족주의를 혐오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아일랜드 문화의 순수성을 믿지도 고수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그가 아일랜드 문예 부흥 운동과 그 중심에 있었던 게일어 부흥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일랜드 고유 언어였던 게일어는 이미 사어(死語)가 된 지 오래였으며 문예부흥운동이 찾고자 했던 아일랜드의 문화적 과거는 신화적 과거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돌아가고 복원해야 할 문화적 과거와 근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조이스는 깨닫고 있었다. 따라서 조이스가 자신의 작품에서 게일어 대신 영어를 선택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문화적 신념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를 말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젊은 예술가 스티븐 디딜러스의 고백에도 잘 반영되어 있듯, 피식민지인으로서 정복자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이스에게 끊임없이 심적 부담감을 가져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피식민지인으로서 조이스가 사용한 영어는 영국인들이 사용하는 원본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의 영어에는 불완전한 모방에 대한 자의식과 죄의식이 스며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율리시스』(Ulysses)에 다시 등장한 실패한 예술가 스티븐 역시 이런 자의식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다소 다른 전략을 취한다. 그것은 “셰익스피어 공식”(Shakespearean algebra) — “햄릿의 손자는 셰익스피어의 할아버지이며 셰익스피어 자신은 자기 아버지의 영혼이다”(U 9.862-71) — 의 창안이 암시하듯, 원본과 모방 사이의 경계를 파괴함으로써 원본의 권위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사해동포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조이스가 영어의 문화적 헤게모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네간의 경야』에서는 더 이상 모방에 대한 자의식이나 언어적 보편성에 대한 추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조이스가 보여주

는 언어실험은 결코 영어에 대한 모방이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차라리 ‘메아리’(echo)에 가깝다. 모방은 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완전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메아리는 결코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원본에 대한 모방이기는 하나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모방이다. 메아리는 잘려지고 파편화된 모방이다. 즉, 『피네간의 경야』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영어가 아닌 영어의 메아리이다. 그것은 잘려지고 파편화되고 혼종화된 영어이다. 그곳엔 대영제국의 문화적 권력과 헤게모니를 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적 순수성을 위한 공간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피네간의 경야』에서 조이스가 창안해낸 언어는 바로 이런 피지배자의 언어이며 메아리로서의 영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조이스의 언어실험이 어떻게 영어의 권위를 해체하고 피지배자의 언어로 변용되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피네간의 경야』에서 시도하는 조이스의 언어실험을 “저항적 에코”(recalcitrant echo)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중심 생각이 되는 “에코”의 개념은 스피박(Gayatri Spivak)의 1993년 논문 「에코」(Echo)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스피박에 따르면 산의 요정 에코의 존재와 그녀가 뱉어내는 메아리는 나르키소스(Narcissus) 신화를 재해석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나르키소스가 “자신에 대한 앎”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인식론을 상징한다면, 에코는 그러한 인식론의 외부에 존재하는 서벌턴(subaltern)적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스피박은 에코가 뱉어내는 메아리를 나르키소스의 발화를 전복시키는 해체적 울림으로 다시 읽는다.²⁾

2) 이 논문의 선행연구인 「‘셋! 조심! 에코랜드!’: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 탈식민적 에코로 다시 읽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산의 요정 에코는 어느 날 미소녀 나르키소스를 보고 한 눈에 반하여 그의 주위를 맴돈다. 그러나 질투의 여신 헤라(Hera)에게서 절대 먼저 말을 걸 수 없고 타인이 한 말의 끝자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벌을 받은 에코는 결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한 에코를 향해 나르키소스는 질문을 던진다. “왜 나에게서 도망가요?”(Why do you fly

이를 『피네간의 경야』에 적용한다면, 조이스식의 언어실험 역시 강요에 의한 정복자의 언어에 대한 수동적 반복이나 흉내가 아니라 그 언어가 기반하고 있는 인식체계와 세계관 자체를 뒤흔들고 대안적 형태의 역사/세계를 제시하는 저항적 “메아리”로 재해석할 수 있다. 비평가 메이즈(Michael Mays)는 자신의 논문에서 『피네간의 경야』는 식민화의 년센스(“the language of colonial nonsense”)를 표현하고 있다고 간주한다(21). 조이스는 언어실험을 통해 식민화의 과정 자체를 조롱하는 셈이다. 일례로, 『피네간의 경야』에는 식민화를 “coglonial expancian”(FW 488.32)이라 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일차적 의미는 물론 “식민 확장”(colonial expansion)이지만 여기에 “어리석다(stupid)”와 “고환(testicles)”의 의미를 지니는 이태리어가 합성되면서 식민화를 남성적 욕망에 의한 확장으로 표현하면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 또한 언어실험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다(Spurr 874). 이렇듯, 정복자의 언어인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피네간의 경야』에서 조이스는 다양한 언어를 조합하는 동시에 영국의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섞어 넣음으로써 형식과 내용의 차원 모두를 통해 탈식민주의를 실천한다.

from me?) 하지만 에코는 제대로 된 응답을 할 수 없다. 고작해야 나르키소스의 발화의 끝자락을 반복할 뿐이다. “도망가오, 도망가오, 도망가오”(Fly from me. Fly from me. Fly from me). 여기서 흥미롭게도 에코의 메아리는 나르키소스의 의문문을 명령문으로 변형시키며,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의 주도권은 에코에게 넘어간다. 사실 오만한 나르키소스가 에코의 사랑을 받아줄 리 만무했다. 그는 타자의 욕망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르키소스의 오만함을 좌절시킨 것은 에코의 고백이다. 즉, “도망가오”라는 그녀의 말은 실제로는 사랑의 고백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나르키소스를 자기만의 세계에 유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타자에 대한 윤리를 위반한 나르키소스가 자기애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코의 메아리가 단순 반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울림은 나르키소스의 발화의 의도와 의미를 지연시키고 변경시킴으로써 데리다(Jacques Derrida) 식의 “차연”(différance)을 생산해 내었다는 것이다. (김경숙 17)

피식민 상황 속에서 영어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 영국 제국주의의 횡포이자 피식민 작가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조이스는 그 형벌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나르키소스의 질문을 메아리로 돌려주었던 에코처럼 그는 영국에게 전혀 다른 영어를 되돌려 주었다. 그는 영어를 가르고 자르고 주무르며 타 언어와 뒤섞어버린다. 그 속에서 영국 제국주의에 억압되었던 피식민 서벌틴의 좌절된 욕망이 메아리처럼 영어 속에 울려 퍼진다. 이를 통해 원본으로서의 영어에 내재된 문화적 권위와 명령은 지연되고 좌절된다. 초월적 기의의 가능성이 폐쇄됨으로써 그의 언어는 다양한 언어의 기표가 자유롭게 유영하며 무한수의 의미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파편화되고 잘려지고 혼종화된 조이스의 영어는 억압받고 피 흘리며 제국주의자의 자식을 낳아야 하는 피지배자의 형상이다. 따라서 그의 영어는 영어를 강요했던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고발한다. 결국 처벌처럼 주어진 영어라는 언어가 조이스의 손에 들어온 순간 수십 개국의 언어와 혼합되어 영어의 순수성 혹은 제국주의가 주장하는 우월적 순혈주의를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하여 부메랑처럼 다시 그들에게 돌아간다.³⁾ 표준화되고 규범화된 영어사용에 대하여 『피네간의 경야』는 경멸을 표한다.⁴⁾

3) 이글턴(Terry Eagleton)은 『히드클리프와 대기근: 아일랜드 문화 연구』(*Heathcliff and the Great Hunger: Studies in Irish Culture*)에서 조이스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비-영어적 목적을 위하여 영어를 전유한 후, 담론의 수준에서 식민 권력 관계를 전복시킨 사실이라 평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맥과이어(Peter A. Maguire)는 정복자가 원주민에게서 언어를 빼앗았을 때, 언어를 빼앗긴 원주민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복수는 정복자의 언어를 취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언어를 통하여 조이스는 에멧(Robert Emmet)이나 파넬(Charles Steward Parnell) 등 그 어떤 아일랜드 혁명가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327).

4) “Let us now, weather, health, dangers, public orders and other circumstances permitting, of perfectly convenient, if you police, after you, policepolice, pardoning me in [. . .] drop this jiggerypokery and talk straight [. . .]”(FW 113.23-26). 조이스는 please가 예상되는 자리에 police를 넣음으로써 표준어로서의 영어가 휘두르는 통제력을 조롱한다.

본 논문은 필자가 앞서 진행했던 스피박의 탈식민주의문학이론을 바탕으로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를 ‘탈식민적 메아리’로 분석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조이스의 텍스트를 일종의 “대안적 역사기술”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후속적 시도이다. 이렇듯 『피네간의 경야』의 언어를 탈식민적인 저항의 에코로 재해석하고 이를 다시 아일랜드 식민역사에 대한 대안적 역사로 다시 읽어내는 일련의 작업은 결국 조이스의 언어실험이 갖는 정치성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낼 수 있다.

III. 대안적 역사쓰기로서의 『피네간의 경야』

『피네간의 경야』를 역사와 연결 짓는 비평은 대부분 비코(Giambattista Vico)의 신화적 역사 패턴의 프레임에 갇히는 경향이 있었다. 주지하듯 비코는 문명이 혼돈으로부터 시작되어 신의 단계, 귀족 단계, 그리고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 다시 혼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원형적 역사관을 제시하였다. 특히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이 다시 첫 부분과 한 문장을 이루는 원형적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네간의 경야』를 비코의 역사관과 연결 짓는 비평은 주류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비평을 인준이라도 하듯 조이스는 텍스트의 시작 부분에 비코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riverrun, past Eve and Adam’s, from swerve of shore to bend of bay, brings us by a commodius vicus of recirculation back to Howth Castle and Environs”(FW 3.1-3). 여기 “vicus”는 ‘작은 마을(village, hamlet; row of houses, quarter of a city)’이라는 일차적 의미와 더불어 ‘악순환(vicious circle)’의 의미도 갖지만, 비코(Vico)의 이름 또한 내포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McHugh 3).

그러나 조이스의 역사관을 비코의 역사관과 동일시하는 비평은 지나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피네간의 경야』 전체를 비코의 틀 속에 맞추는 탓에 텍스트 속에 있는 세세한 아일랜드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단점을 피

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비평가는 비코와 조이스를 비교하는 것은 ‘역사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패턴과 반복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역사의 남용이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역사적 흐름 속에서 행위자의 역할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 관조적이고도 결정론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회피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Altieri 238).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의 패턴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해석은 역사에 연루된 행위자들의 실천적 의지(agency)와 책임의 의미를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네간의 경야』의 전체적인 틀을 인류 보편의 신화적 역사의 패턴에 끼워 맞추는 해석보다는 실제 아일랜드의 역사가 『피네간의 경야』에서 특유의 언어실험을 거치며 대안적 형태로 다시 쓰이는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으리라 믿는다.

사실 조이스의 모든 작품들 속에서 ‘역사’는 무시할 수 없는 화두이지만, 특히 『피네간의 경야』를 해석함에 있어 ‘역사’는 피할 수 없는 중심 주제이다. 비평가 번즈(Christy L. Burns)는 『피네간의 경야』 자체를 아일랜드의 역사라는 화두로 해석한다: “『피네간의 경야』는 조이스가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데, 한 인물의 의식 내에 머물면서 다양한 화자들의 지결임으로 보기도 하고 동시에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지형도 내에 퍼지는 양상으로 파악한다”(249).⁵⁾ 조이스가 『피네간의 경야』에서 구성하는 아일랜드의 역사는 단 하나의 버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화자의 수많은 말들에 의해 굴절되고 분산된다. 중심인물 HCE의 이야기는 아일랜드의 역사, 전설, 신화, 그리고 나라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역사, 전설, 신화에 대한 메아리로 퍼져 나간다(Burns 239).

조이스는 『피네간의 경야』의 다음 대목에서 만화경을 통해 현실이 수많은 현상으로 분산되는 양상이 결국 역사임을 드러낸다:

5) 번즈의 비평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 portion of *Finnegans Wake* . . . suggests a reading of Joyce’s configuration of Irish history and Ireland as the babbling of various communities of speakers who dwell both within the consciousness of one figure while also spreading into the surrounding social landscape”(249).

Now, to be on anew and basking again in the panaroma of all flores of speech, if a human being duly fatigued by his dayety in the sooty, having plenxty off time on his gouty hands and vacants of space at his sleepish feet and as hapless behind the dreams of accuracy as any camelot prince of dinmurk, were at this auctual futule preteriting unstant, in the states of suspensive exanimation, accorded, throughout the eye of a noodle, with an ear-sighted view of old hopeinhaven with all the ingredient and egregiunt whights and ways to which in the curse of his persistence the course of his tory will had been having recourses, the reverberration of knotcracking awes, the reconjungation of nodebinding ayes, the redissolusingness of mindmouldered ease and the thereby hang of the Hoel of it, could such a none . . . byhold at ones what is main and why tis twain, how one once meet melts in tother wants poignings . . . then what would that fargazer seem to seemself to seem seeming of, dimm it all?

Answer: A collideorscape! (*FW* 143.3-28)

비평가 알티에리(Charles Altieri)가 지적하듯 위의 인용 단락은 역사에 대한 조이스의 해체주의적 입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조이스는] 사건의 정확성을 추구하거나 계몽주의적 이성을 고수하는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240). 위의 대목은 모든 것을 조망하는 파노라마적인 시선이 나 모든 사건에 대한 정확성을 떠나 오히려 근시안적이고(“ear-sighted view”) 오류투성이(“egregiunt”) 시선이 역사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방법론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poignings”은 화폐주조와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뜻하는 ‘coining’과 고의로 저지른 ‘날조’(fabrication)의 의미까지도 포함하며, 특히 영국의 모든 법이 아일랜드에서 강행되며 아일랜드에서는 그 어떤 법도 영국 왕의 허가 없이는 통과될 수 없음을 명시한 ‘Poyning’s Law’(1459년)도 암시함으로써 영국의 제국주의적 역사관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저항적 태도도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이스는 ‘만화경’을 뜻하는 ‘kaleidoscope’를 그대로 쓰지 않고 ‘collideorscape’로 철자를 바꾸었는데 이러한 조이스의 언어실험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만화경을 뜻

하는 단어인 ‘kaleidoscope’를 ‘collideorscape’로 철자를 바꾸면서 ‘충돌’(collide)과 ‘탈출’(escape)의 의미가 삽입된 셈이다. 이러한 언어실험은 결국 서로 상충하며 막상 정통을 가장한 강대국 중심의 공식역사서사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서사와 담론들이 역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권위를 가장한 초월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시선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구성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평가 알티에리는 “조이스의 텍스트는 단 권의 책이라는 한계 속에 역사적 존재의 다양성, 복잡성, 상반됨과 표리부동함을 포함할 수 있는 의식의 모형이 되고, 그것은 다시 하나의 상상이 갖는 잠재력을 보여준다”(Altieri 242)고 언급한다. 결국 수많은 버전의 양상이 빚어지는 만화경의 은유는 조이스가 갖고 있는 대안의 역사관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고 하겠다.

비평가 휘틀리(Catherine Whitley)는 자신의 논문 「나라와 밤: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와 주나 반즈의 『야목』에 나타난 배설의 역사」(“Nations and Night: Excremental History in James Joyce’s *Finnegans Wake* and Djuna Barnes’ *Nightwood*”)에서 『피네간의 경야』가 역사를 배설물과 쓰레기로 간주한다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소설 『피네간의 경야』은 암탕 비디가 신비의 편지를 파내는 오물 혹은 두엄덩어리 그리고 편지 그 자체와 유사성을 갖는다”(93).⁶⁾ 실제 조이스는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에서 편지 혹은 철자/문학을 쓰레기와 동일시한다(“The letter! The litter!”[*FW* 93.24]). 이와 같은 시선으로 보자면 문학과 더불어 역사 서술 역시 대단한 권위를 갖는 정통 서사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뱉는 온갖 잡다한 잡담, 즉 “쓰레기”(history of detritus, 93)로 볼 수 있다. HCE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암탕 비디가 두엄 더미를 쪼아대며 찾아 헤매는 편지(letter)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언어를 조합하여 만들고자 했던 『피네간의 경야』 식의 철자(letter)는 서로 일맥상통하며, 각각 유일무이

6) 쉹(Vincent J. Cheng) 역시 이보다 앞서 『피네간의 경야』를 “쓰레기에서 파낸 편지”(“letter from litter”)로 간주한 바 있다(“Godinpotty” 85).

한 진실과 영국제국의 언어로서 영어가 갖는 권위를 철저히 허문다.

비평가 메이즈(Michael Mays) 역시 자신의 논문 「『피네간의 경야』, 식민화의 넌센스, 그리고 탈식민 역사」(*Finnegans Wake, Colonial Nonsense and Postcolonial History*)에서 유사한 주장을 한다. 그에 따르면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는 HCE의 무죄를 입증하고 그를 구원해 줄 “잃어버린 편지(missing letter)”를 중심으로 공전한다(Mays 23). 그러나 정작 이 편지는 발견되지도 그 내용이 밝혀지지도 않은 채 편지를 둘러싼 수많은 루머와 가십만 양산할 뿐이다. “잃어버린 혹은 부재하는 편지를 둘러싸고 자라나는 신화를 통해서, 그리고 HCE와 그의 ‘범죄’를 둘러싼 이야기와 루머와 가십의 확산을 통해서 『피네간의 경야』가 명확히 보여주듯, 편지는 결코 발견될 수 없을 것이고, 편지의 존재가 생성한 이야기, 신화, 그리고 루머는 편지에 대해 우리가 아는 전부가 될 것이다”(24). 이 편지를 역사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면, “역사서술(historiography)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재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부터 결코 초연한 기획일 수 없다”(Mays 24).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두 여인의 음탕한 대화로 이루어지는 I권 8장의 텍스트는 이와 유사한 조이스의 역사관을 그대로 육화한다. 빨래하는 두 여인은 더러운 옷에서 나오는 구정물을 잉크 삼아 ALP와 HCE에 대한 이야기와 아일랜드의 기원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 특히 다음 대목은 조이스의 대안의 역사쓰기에 대한 태도를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Only snuffers' cornets drifts my way that the cracka dvine chucks out of his cassock, with her eastheryear's marsh narcissus to make him recant his vanity fair. Foul strips of his Chinook's bible I do be reading, dodwell disgusted but chickled with chuckles at the tittles is drawn on the tattlepage. (*FW* 212.30-34)

위의 대목을 거칠게나마 번역을 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그로 하여금 허영의 시장 이야기를 철회하게 만든 ALP의 왕년의 습지 수선화로 함께 미

치광이 성직자가 사제복에서 꺼내 던져 버린 코담배 마는 고깔종이가 내 쪽으로 똥똥 떠가네. 인디언의 성경에 나오는 지저분한 만화를 난 읽고 있는데, 혐오스럽긴 하지만 겉표지에 쓰여 있는 제목/작은 글씨에 킬킬 크크 댕지.” 인용 중 “cracka dvine”은 말년에 실제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했고 신랄한 독설로 유명하기도 한 ‘미치광이 성직자’(cracked divine) 스위프트(Jonathan Swift)를 뜻하며, “eastheryear’s” 안에 숨어 있는 ‘easther’는 성직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모한 두 여인(Esther Johnson & Esther Vanhomrigh)을 뜻한다. 그리고 인용 마지막 부분의 ‘tittle’과 ‘tattle’은 모두가십과 잡담을 뜻한다. 성직자와 성경은 가십과 잡담에 비유되며 그 권위가 철저히 무너진다. 성직자의 신분으로 여인을 연모하기도 하고 담배종이를 사제복 주머니에서 꺼내는 성직자의 모습과 기독교를 전파하는 백인에게 받은 성경책에 음란한 만화를 그려 넣는 인디언의 모습은 기독교의 권위를 허물기에 충분하다.

다음 대목 역시 조이스의 대안적 역사관을 여실히 드러낸다:

all the stranger things that ever not even in the hundrunt and badst
pageans of unthowsent and wonst nice . . . [depend upon] the untireties of
livesliving being the one sub stance of a streamsbecoming. Totalled in
toldteld and teldtold in tittle-tell tattle. (FW 597.4-9)

결국 조이스는 정통 역사책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강물을 이루는 잡담(“tittle-tell tattle”) 같은 기이한 이야기들이(“stranger things”) ‘역사’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두 여인은 빨래를 하며 피닉스공원에서 HCE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리고 ALP의 과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잡담과 험담을 늘어놓는다. 가십의 특성 상 온통 오류투성이다: “You’re wrong there, corribly wrong! Tisn’t only tonight you’re anacheronistic!”(FW 202.34-35). 그러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거나 시간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어차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술의 특성 상 말하는 이, 듣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

황 등에 따라 수없이 많은 버전이 탄생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피네간의 경야』 자체가 대안의 형태의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없고 의미가 고정되지 않는 루머가 그러하듯 한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여인에 의해 끊임없이 의심되고 무시된다(“Who sold[told] you that jackalantern’s tale?”[FW 197.26-27]). 이렇듯 『피네간의 경야』 속의 서사는 ‘잭 오 랜턴’의 어른거리는 불빛처럼 정통역사의 서사를 비스듬히 비춘다.

비록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본 논문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워털루 전쟁,⁷⁾ 씨포이 항쟁, 부활절 봉기, 피닉스 파크 살인 사건,⁸⁾ 파넬의 몰락⁹⁾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피네간의 경야』 전반에 걸쳐 HCE의 이야기에 덧씌워져 다시 쓰인다. 합의에 의한 결혼이라기 보

- 7) 첵이 자신의 저서 『조이스, 인종, 그리고 제국』(*Joyce, Race, and Empire*)에서 분석하듯, 웰링턴기념탑 근처 박물관에 대한 묘사 장면은 그대로 워털루 전쟁과 연결되고 높이 솟은 기념탑은 발기한 남성 성기에 대한 상징으로 이어지고 제국주의적 욕망과 폭력은 가부장적 욕망과 폭력으로 다시 쓰인다(281). 이는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coglonial expancian”(FW 488.32)과도 일맥상통한다.
- 8) ‘피닉스 공원 살인사건’은 조이스가 태어난 해인 1882년 5월 6일 일어난 살인 사건을 칭한다. 두 영국 고위 관리(Lord Frederick Cavendish and Thomas Henry Burke)가 아일랜드의 혁명당(Irish National Invincibles) 당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다. 파넬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주의 독립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또 파넬이 이 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의심되면서 몰락하게 되었기에 이 사건에 대해 조이스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피네간의 경야』에서 피닉스 공원을 “악마의 공원”(Fiendish park, FW 196.11)으로 표현한다. 이렇듯 『피네간의 경야』에서 피닉스 공원은 “폭력, 위반, 배신, 불확실성의 장소”로 묘사된다(Lacivita 317).
- 9) 파넬은 유명한 별명인 ‘여우’(Mr. Fox)로 불리며 『피네간의 경야』 텍스트 곳곳에서 언급된다. 예를 들어, “through he was foxed fux to fux like a bunnyboy rodger with all the teashop lionses”(FW 177.35-178.01) 대목은 기본적으로는 원담 루이스(Wyndam Lewis)의 저서 『사자와 여우』(*The Lion and the Fox*)를 지칭하지만, 사자는 잉글랜드를 여우는 파넬을 칭한다. 또한 이솝우화 “여우와 신 포도”를 “The Mookse and The Gripes”(FW 152.15)로 다시 쓰기도 한다. HCE의 말을 더듬는 설정과 성에 대한 악성루머와 이로 인한 몰락은 파넬과 오시에(Kitty O’Shea)를 둘러싼 스캔들과 이로 인한 몰락과 연결된다(Burns 240).

다 겁탈에 가깝게 묘사되는(“he raped her home”[FW 197.21]) HCE와 ALP의 결혼과 배를 타고 온 HCE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ALP에 상륙하는 장면은 아일랜드에 대한 바이킹의 식민주의적 정복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¹⁰⁾

IV. 글을 마치며

조이스는 1926년 11월 24일 그의 문학인생의 오랜 후원자인 위버(Harriet Shaw Weaver)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네간의 경야』가 추구하는 서사의 특징을 밝힌 바 있다. “모든 인간 존재의 중요한 부분은 완전히 잠에서 깨어 언어, 딱딱하고 건조한 문법, 그리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줄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현명하게 나타낼 수 없다”(“One great part of every human existence is passed in a state which cannot be rendered sensible by the use of wideawake language, cutanddry grammar, and goahead plot,” *Selected Letters* 318). 따라서 인간 존재의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는 『피네간의 경야』의 서사는 꿈꾸는 언어, 비문법적인 유연함,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과거와 미래를 질주하는 줄거리를 통하여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방식은 역사서사에도 적용되며 정통 역사를 벗어나 루머와 가십으로서의 대안적 역사쓰기를 절묘하게 육화한다.

『율리시스』의 두 번째 챕터인 「네스토」(Nestor) 장에서 “역사는 악몽

10) 아일랜드에 대한 바이킹의 침입을 ALP에 대한 HCE의 구애에 빗대어 표현한 대목은 『피네간의 경야』에 여러 번 등장한다.

I was the pet of everyone then. A princeable girl. And you were the patymammy's Vulkling Corsergogh. the invision of Indelond. And, by Thorrer, you looked it! My lips went livid for from the joy of fear. Like almost now. How? How you said how you'd give me the keys of me heart. And we'd be married till delth to uspart. (FW 626.26-31)

이다”(U 2.377)라고 외치는 조이스의 분신 스티븐은 악몽으로서의 역사를 펼쳐낼 “무한한 가능성들의 장”으로서의 역사를 상상하며(U 2.48-53), “바람을 짜는 자여, 짜라”(U 2.53)라고 읊조린다. 이는 기존의 결정론적 정통 역사서사와 달리 다양한 버전이 가능한 직물 즉 텍스트,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역사 자체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한다. 진보의 폭풍우를 등지고 앉아 이미 파편으로 남은 과거의 부스러기들 속에서 과거의 재건이라는 불가능한 일에 매달려있는 ‘천사’(the angel of history)의 모습에서 역사의 알레고리를 보았던 벤야민(Walter Benjamin)과 달리 조이스의 스티븐은 오히려 역사를 ‘무한한 가능성들의 장’으로 끌어내어, 파편으로 남은 과거의 부스러기들로부터 무한히 많은 버전의 대안적 서술이 가능함을 상상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역사쓰기의 가능성은 아이러니하게도 『피네간의 경야』에서 HCE의 편지의 ‘부재’를 통해 재현된다. 피닉스 공원에서 자신의 죄/무죄를 고발/입증하기 위해 쓴 HCE의 편지는 『피네간의 경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할 뿐, 편지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버전으로 다시 말해지는 모든 이야기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 “[다양한 화자에 의해] 서술되는 (비)사실([un]facts)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전적으로 동일하게 남는다”(Lemos 353-54).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버전의 다양한 메아리—그것이 바로 조이스가 재현하고자 했던 역사가 아닐까? (“Thus the unfacts, did we possess them, are too imprecisely few to warrant our certitude, the evidencegivers by legpoll too untrustworthily irreperible where his adjudgers are seemingly freak threes but his judicandees plainly minus twos”[FW 57.16-19]).

결국 『피네간의 경야』에서 조이스의 기획은 “식민화의 권력 관계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언어의 세계를 환기시키는 것이며, 식민화의 불행한 권력 관계는 조이스의 작품이 독자를 깨우는 역사의 악몽이다”(Spurr 886). 역사가 깨어나고 싶은 악몽이라고 한다면 조이스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조이스의 전기 작가로

잘 알려진 엘만(Richard Ellmann)은 『피네간의 경야』에 대해 “그건 꿈과 같다. 문체 역시 꿈의 세계처럼 변화무쌍하고 비현실적이다”(709)고 지적한다. 조이스는 악몽으로서의 역사에 갇히지 않고 꿈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대안의 버전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안양대)

인용문헌

- 김경숙. 「“췌! 조심! 에코랜드”: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 탈식민적 에코로 다시 읽기」 『제임스조이스저널』, 24권, 2호, 2018, pp. 9-27.
- Altieri, Charles. “*Finnegans Wake* as Modernist Historiography.” *NOVEL*, vol. 21, 1988, pp. 238-50.
- Burns, Christy L. “Parodic Irishness: Joyce’s Reconfigurations of the Nation in *Finnegans Wake*.” *NOVEL: A Forum of Fiction*, vol. 31, 1998, pp. 237-55.
- Cheng, Vincent. J. “‘Goddinpotty’: James Joyce and the Language of Excrement.” *The Languages of Joyce: Selected Papers from the 11th International James Joyce Symposium*, edited by Rosa Maria Bollettieri Bosinelli, Carla Marengo, and Christine van Boheeme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2, pp. 85-102.
- .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UP, 1995.
- Eagleton, Terry. *Heathcliff and the Great Hunger: Studies in Irish Culture*. Verson, 1995.
- Joyce, James. *Finnegans Wake*. Viking, 1939.
- . *Selected Letters*, edited by Richard Ellmann. Faber and Faber, 1975.
- .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et al. Vintage, 1986.
- Lacivita, Alison. “Trouble in Paradise: Violence and the Phoenix Park in *Finnegans Wake*.” *JJQ*, vol. 51, 2014, pp. 317-31.
- Lemos, Marcia. “‘Every Telling Has a Tailing’: Narrative vs. Narrativity in *Finnegans Wake*.” *Papers on Joyce*, vol. 17&18, 2011-2012, pp. 349-70.
- Maguire, Peter A. “*Finnegans Wake* and Irish Historical Memory.”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vol. 22, no. 2, 1998-9, pp. 293-327.
- Mays, Michael. “*Finnegans Wake*, Colonial Nonsense, and Postcolonial

History.” *College Literature*, vol. 25, 1998, pp. 20-34.

McHugh, Roland. *Annotations to Finnegans Wake*. Johns Hopkins UP, 1980.

Spivak, Gayatri. “Echo.” *New Literary History*, vol. 24, 1993, pp. 17-43.

Spurr, David. “Writing in the *Wake* of Empire.” *MLN*, vol. 111, 1996, pp. 872-88.

Vico, Giambattista. *The New Science of Giambattista Vico*. Cornell UP, 1968.

Whitley, Catherine. “Nations and the Night: Excremental History in James Joyce’s *Finnegans Wake* and Djuna Barnes’ *Nightwood*.”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vol. 24, 2000, pp. 81-98.

Abstract

Postcolonial Echo Reverberating *Finnegans Wake* and Rewritten Alternative History

Kyoungsook Kim

This essay, written as a sequel to my earlier one “‘Hush! Caution! Echoland’: Rereading Joyce’s *Finnegans Wake* as a Postcolonial Echo,” aims at reinterpreting *Finnegans Wake* as an alternative historiography. In my earlier study, I argue that the language of *Finnegans Wake* is not English but the echo of English, which is amputated, fragmented, and hybridized, and that Joyce’s language experiment deconstructs the authority of English and reverberates postcolonial recalcitrant echo.

As a follow-up study, this essay reads *Finnegans Wake* as an alternative historiography, which means re-writing or writing back of the orthodox colonial/nationalist historiography. While the missing letter on HCE’s sin symbolizes the absence of absolute truth, the text of *Finnegans Wake* is written by numerous unreliable stories, rumors, and gossips, which ceaselessly crisscross and contradict each other. As a dream-text, *Finnegans Wake* wakes readers from the nightmare of orthodox historiography and suggests the possibilities of variegated versions of alternative historiographies.

■ Key words : Joyce, *Finegans Wake*, postcolonialism, alternative historiography, echo

(조이스, 『피네간의 경야』, 탈식민주의, 대안적 역사쓰기, 에코)

논문접수: 2020년 11월 13일

논문심사: 2020년 12월 12일

게재확정: 2020년 12월 16일